

지역 매아리

정읍 단풍미인컵 볼링대회 성료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2018 정읍 단풍미인컵 SBS 프로볼링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프로볼링협회와 정읍시 볼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250여명의 전국 프로볼링 선수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지난 16일 더원경기장에서 열린 TV파워볼 결승전 결과 개인전에서는 남녀 모두 프로 데뷔 첫 우승을 따내는 이변이 연출됐다.

남자부에서는 (주)로즈필드 소속의 문경호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타이어뱅크(주) 박서연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단체전에서는 남자부는 DSD팀이, 여자부에서는 (주)삼호아미존팀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결승전을 관람한 유진섭 정읍시장은 "박진감 넘치는 스타라이크 속에 눈에 띄는 경쾌한 경기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일주일 간 정읍의 가을 정취와 넉넉한 인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우승 선수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SBS Sports를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 된 이번 경기를 통해 볼링 인구의 재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정읍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국가예산 막바지 '총력전'

2019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 유 시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제출된 예산의 감액방지와 증액을 위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장식 위원 등을 만나 상임위에서 반영된 4개의 사업 126억원을 증액시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4개 사업은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축산분뇨 악취를 농장, 이탄단지 조성사업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정읍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농소~하모) 등이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1,258억원이고, 시는 위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188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유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5,200억원 이상이 최종 확보될 때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마지막까지 예산확보 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감액됐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당초 요구액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부안군, 지자체 행복지수 평가 대상 영예

주민리서치 평가 통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

부안군이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측면에서 인덱스를 도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2차로 주민리서치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졌다.

부안군은 민선7기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소득, 행복, 사람이 늘어나는 '3UP'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신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교육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변산해수욕장 내 전복교직원

수련원 조기 착공, 가족호텔 유치 등 휴양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부안을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부안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부안군은 민선7기 핵심 정책들이 군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을 섬기고 군민중심의 균형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을 강화해 군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배낭여행 '모두의 마블:서울편'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체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주최하고 고창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서영주)가 주관한 청소년 배낭여행 '모두의 마블:서울편'이 지난 17일부터 18일 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고창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획됐다.

전 세계 도시의 건물을 사교하는 인기 보드게임의 재미를 구현한 '모

두의 마블:서울 편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게임 방식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흥미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서울 주요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와 환경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 조별로 이동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등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체험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11일 고창청소년문화센터에 모여 안전 교육 등 사전모임을 가진 후, 17일 서울로 이동하여 광화문, 명동성당 등을 방문했다.

한편, 고창청소년문화센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성장하도록 매년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대회 등 스포츠를 비롯, 문화축제, 락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을 품고 달린다

고인돌마라톤대회 성황... 선수·가족 등 7000여명 참여

'제16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선수들과 가족 등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지난 18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선사시대부터 마한시대까지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모로비리국의 고장에서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마라톤 참가자 중 광주 서구의 안재빈(민4세)은 최연소 참가자로, 충남 청양군 한광수(민85세)씨는 최고령자로 건강코스(5km)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회에서는 고인돌을 상징하는 원시인 복장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이

목을 끌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늦가을의 정취가 담긴 청정한 고창군의 마라톤 주로를 누볐다.

70세 이상 참가자 65명은 노인장을 과시했으며 20인 이상 단체 참가팀도 정읍시육상연맹을 비롯하여 남양주육상연합 등 32개 단체가 참가해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전국규모의 명성을 얻은 대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한편, 이날 풀코스 남자 1위는 로버트허드슨(전주)님이 2시간38분45초, 여자 1위는 문선미(경기안양)님이 3시간17분50초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출전을 선호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는 2003년 첫 해부터 꾸준히

다양한 먹거리로 참가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떡국, 막걸리, 두부·김치, 인절미, 돼지고기, 쇠고기 등 푸짐한 먹거리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심히 뛰어 준 선수들에게 고창의 정이 듬뿍 담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찾아주시는 마라토너들에게 넉넉한 먹거리와 훈훈한 인심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아름다운 절경을 만끽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는 대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지난 7월에 첫 삽을 뜬 '자암 박준승 기념관' 건립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자암 박준승 기념관'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

애국정신 계승하는 교육장소 활용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7월에 첫 삽을 뜬 '자암 박준승 기념관' 건립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념관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인 자암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산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박준승 선생의 고택지가 있는 산외면 평사리 일대에 조성 될 기념관은 6,045㎡ 부지 내에 170㎡ 규모로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한옥형 기념관으로 건립하게 된다.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건축분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에서는 내부전시시설 설계를 위해 조달청 공고·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수차례 협상과 타 기념관 벤치마킹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시물은 스토리텔링형 전시물과 오감만족 체험형 전시물 등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설 위주로 구성하여 백정기 의사 기념관과 함께 정읍

의 대표 보훈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실물 전시를 통해 자암 선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박준승선생 관련 유물구입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고를 내고, 이후 유물 구입을 통해 내부전시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자암 박준승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후대가 이어받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868년 11월 임실군 청운면에서 태어난 자암 박준승선생은 1890년 동학에 입교한 이후 동학교도도 활동했다. 1919년에 천도교 대표 15인과 함께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3·1 만세삼창 후 일본경찰에 검거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21년 만기출소, 1927년 3월 28일에 별세하여 부친 마정리 덕방산에 안장됐으며, 1963년 현재의 수성동 성황산 장막에 영면에 들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미화와 함께하는 '나눔과 기부 통한 행복한 삶'

'한반도 첫 수도 고창 포럼' 22일 청소년수련관서 열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시사·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포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반도 선사·고대문명의 중심 고창'을 주제로 원광대 최원규 교수를 초청해 자랑스러운 고창의 역사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고창포럼'이 방송인 김미화씨를 초청해 두 번째 포럼을 마련한다. 오는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포럼은 '나눔과 기부를 통한 행

복한 삶'을 주제로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1984년 K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시작하여 199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카드후견인, 2007년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등을 수행하고, 2002년 기자들이 뽑은 최고의 선명 연예인으로 선정된 경험을 토대로 나눔과 기부의 가치와 행복한 삶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자치행정과(063-560-2349)로 문의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wine bottles (Mulberry Wine, Odi Wine, and Sangju Wine) and several gift set option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빛났습니다.'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A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B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he logo for Gangsanmulberry Wine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top left.